



## 지진 · 폭염 · 낙뢰시 행동요령

### 1 지진발생시 행동요령

- >> 집안에 있을 때는
  -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.
  - 불이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한다.
- >> 집 밖에 있을 때는
  - 블록담,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.
  - 손이나 가방 등 드는것으로 머리를 보호한다.
  -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개활지로 대피한다.
- >>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는
  - 지진이나 화재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.
  -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한다.
- >>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때는
  -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정차시킨다.
  - 대피할 경우 자동차 키를 꽂아 둔 채로, 문을 잠그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신한다.

### 2 폭염시 행동요령

- >> 폭염대비 요령
  - 가급적 야외활동 및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한다.
  - 식사는 균형있게, 물은 많이 섭취해야 한다.
  - 비닐하우스 및 축사주변에 차광·수막시설을 설치한다.
  - 공사현장은 휴식시간을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한다.

#### >> 폭염관련 환자 조치

- 환자 발견 즉시 119로 신고, 신속히 구급대가 출동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더운 환경에서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로 이동한다.
- 의복을 제거하고 꼭 끼는 의복은 느슨하게 한다.
- 찬물이나 얼음주머니를 몸에 대어 몸을 식히거나 알콜로 피부를 닦아준다.

### 3 낙뢰시 행동요령

- >> 낙뢰를 맞았을 때 조치
  -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마사지를 한다.
  - 환자가 의식이 분명해 보여도 감전은 몸속 깊숙히까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빨리 응급병원으로 이송한다.



## 재난징후정보 제보 참여안내

### ◎ 재난징후정보란?

일상주변에서 발견되는 위험 상황으로서 방치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며, 안전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정보

### ◎ 주요 제보 사례



공동주택 주변 도로 침하 (경기도 000시)



급경사지 비탈면 유실, 붕괴 우려 (대전광역시 00구)



KTX 경부선 하부광간의 화재 발생 위험 (경기도 00시)

### ◎ 참여방법



“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”

# 4계절 재난대비 안전사고 예방요령



태백시  
인간중심 자연중심, 산소도시 태백  
www.taebaek.go.kr



## 태풍 · 호우시 행동요령

### 1 태풍시 행동요령

- >> 태풍이 오기 전에는
  - TV나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한다.
  -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.
  -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.
  - 응급 약품, 손전등, 식수,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한다.
- >> 태풍 주의보 및 경보때는
  - 저지대·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.
  - 라디오, TV,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둔다.
  - 집주변이나 경작지의 용·배수로를 점검한다.
  -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.
  - 비닐하우스,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둔다.
- >>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
  - 파손된 상·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·군이나 읍·면·동사무소에 연락한다.
  -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먹는다.
  -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, 전기 가스, 수도시설은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점검 후 사용한다.

### 2 호우시 행동요령

- >> 호우 예보때는
  - 저지대·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.
  - 침수 시 피난 가능한 장소를 동사무소나 시·군에 연락하여 알아둔다.
  - 대형공사장,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.
  -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.
- >> 호우 주의보 및 경보때는
  - 물을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.
  -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둔다.
  -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.
  -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침수를 예방한다.
- >>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
  -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, 구조적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한다.
  - 물에 잠긴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, 가스·전기 차단기가 아예 있는지 확인하고,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점검 후 사용한다.



## 봄철 안전관리

### 1 불청객 황사 대처

-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는다.
-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한다.
- 외출할 때 마시크는 기본, 매일 세탁 후 사용한다.
- 노약자,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.
- 황사에 노출된 채소,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한다.
-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외출할 때는 긴소매 옷을 착용한다.
- 소금물로 입안을 행귀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.

### 2 건조한 계절 산불조심

#### >>산불 예방은 이렇게

- 산에 갈 때는 담뱃불과 같은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.
- 취사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.
- 논·밭두렁을 함부로 태우지 않는다.
- 산에서의 흡연은 삼가하고 산불을 조심한다.

#### >>산불발생시 이렇게 행동

- 산불 발견시 119, 시·군, 읍·면·동사무소 등에 신고한다.
- 초기의 작은 산불은 잘 타지 않는 물건으로 빨리 끈다.
- 대피장소는 타버린 지역, 저지대, 탈것이 없는 지역, 바위 뒤, 도로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.

### 3 산악등산시 안전사고 예방수칙

-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,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친다.
- 코스 설정시 급경사는 오르막, 완경사는 내리막길을 선택한다.
- 2인 이상 등산하되,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.
- 배낭을 잘 꾸리고 손에는 절대 물건을 들지 않는다.
-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이 좋은 것을 착용한다.
- 산행 중 길을 잃었을 때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으로 올라간다.

### 3 즐거운 나들이 안전

- 놀이기구 탈 때는 게시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한다.
- 신장 및 연령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이용한다.
- 유원시설 이용은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.
- 해외여행시 재외공관, 응급병원 등 연락처를 알아둔다.
- 해외여행시 목적지의 주의·경고·제한·철수 등 여행 정보가 내려져 있는지 확인한다.

## 여름철 안전관리

### 1 물놀이 10대 안전수칙

-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,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.
-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(다리, 팔, 얼굴, 가슴 등의 순서)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.
-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.
-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.
-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.
-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.
-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(튜브, 스티로폼, 장대 등)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.
-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때나, 몹시 배가 고프거나,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.
-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,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.

### 2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사항

- 물놀이 할때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어른이 동반한다.
-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.
-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.
-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,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.
- 수영 중에 "살려 달라"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지 않는다.

### 3 인명 구조 방법

- 119 또는 응급환자정보센터 등에 전화하여 구조를 요청한다.
-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 턱을 들어 올리고 목을 뒤로 젖혀 입 안에 이물질이 들어 있으면 빼낸다.
- 호흡은 있는지, 맥박은 뛰고 있는지 확인한다.
- 호흡이 없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두 번해서 환자의 입에 바람을 불어넣는다.
- 환자 오른쪽에 무릎 꿇고 앉아서 깎지 낀 양손 손꿈치로 가슴 아랫쪽 2분의 1 되는 위치에 올려놓고 4~5cm 깊이로 눌러 준다. 심장마사지 30회, 인공호흡 2회를 한 세트로 한다.

www.taebaek.go.kr

## 가을철 안전관리

### 1 불조심 10대 안전수칙

- 전열기구는 사용한 후 반드시 플러그를 뽑는다.
- 어린이에게 불을 맡기거나 불장난을 못하도록 한다.
- 취침전 외출시에는 화기 및 전기·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한다.
- 매일 퇴근시간 전·후 불조심 방송을 실시한다.
- 흡연구역을 준수하여 담배불이나 궤초를 아무곳이나 버리지 않는다.
- 난로 주위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화기, 모래 등을 준비한다.
- 자체 방화순찰을 철저히 이행한다.
- 유류 등 위험물은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취급한다.
- 전기시설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휴무 기간 중에는 완전 차단한다.
- 가연성 가스는 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취급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소방시설 사용법을 익혀둔다.

### 2 안전한 가을산행 안전수칙

- 산행은 아침일찍 시작하고 해가 지기 한두시간 전에 마친다.
- 하루 산행은 8시간 정도로 하고 체력의 3할은 항상 비축한다.
- 음주나 단독산행을 삼가고 기상 악화시엔 인근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한다.
- 일행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.
-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계곡, 폭포 등 위험한 곳엔 접근하지 않는다.

### 3 벌 쏘임 사고대비 안전수칙

- 벌을 자극하는 향수, 화장품 등과 밝은 계통의 의복은 피한다.
- 벌초 등 작업시 사전에 벌집의 위치를 확인한다.
- 벌을 만났을때는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린다.
- 응급처치는 얼음찜질과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뒤 안정을 취한다.

### 4 뱀 물림 사고대비 안전수칙

- 벌초시에는 두꺼운 등산화를 반드시 신는다.
-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지팡이 등으로 미리 헤쳐 안전유무를 확인한다.
- 뱀에 물린 사람은 눕혀서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한다.
-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풀어 오르면, 물린 곳에서 5~10cm 위쪽을 끈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한다.

www.taebaek.go.kr

## 겨울철 안전관리

### 1 대설·한파시 우리집 10대 안전대책

- 대설·한파에 관한 정보를 주의깊게 듣는다.(휴대용 라디오 준비)
-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.
- 자기용보다 지하철,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.
- 내집앞,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운다.
- 염화칼슘, 모래, 삽 등 안전장구를 미리 준비한다.
- 오래되거나 약한 주택일 경우 이웃이나 친지집으로 미리 대피한다.
-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 시설을 받침대로 보강하거나 비닐을 찢어 재배 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한다.
-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한다.
- 수도 계량기, 보일러 등은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한다.
-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읍·면·동사무소 전화번호 등을 미리 알아둔다.

### 2 폭설 시 고립차량 운전자 행동요령

- 출발전 기상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장비와 연료, 식음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.
- 고립·정체시에는 가급적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, 차량을 이탈할 시에는 연락처와 키를 찾아 둔채 대피한다.
-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.
- 차량히터 작동시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둔다.
-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.
- 라디오 및 소방방재청 제공, 휴대폰 문자방송 등을 통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행동한다.
- 차량고장 시에는 도로관리기관, 경찰서 및 소방소에 연락을 취한다.

### 2 겨울철 화재예방 요령

- 화재대비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 합니다.
- 자택에 불필요한 가연물(헌옷, 신문폐지, 패박스 등)을 쌓아놓지 않습니다.
- 어린이의 손이 닿거나 쉽게 사용 가능한 곳에 라이터나 성냥갑을 두지 않습니다.
- 가스불 위에 요리를 올려놓고, 내버려둔 채 주방을 잠시간 비우지 않습니다.
- 류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합니다.
-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, 노후 되었거나 손상된 전선은 새 전선으로 교체합니다.
- 가정용 소화기를 꼭 비치합니다.

www.taebaek.go.kr